

# 한국언론학보, 무엇이 달라지나

「학술지 연구윤리규정」 제정 및 「한국언론학보 규정」 개정 안내

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정동훈 · 2026년 10월

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보기

## 한눈에 보기

한국언론학회회는 2026년 10월 1일 이사회를 거쳐 3개 학술지 공통의 「학술지 연구윤리규정」과 「한국언론학보 규정」을 전면 개정했습니다.

**개정 원칙:** ① 대외 학술 지침의 엄격한 준수 ② 국제 표준의 학술지 운영 프로세스 확립 ③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

**개정 배경:** AI로 인해 투고가 급증하고, 학보는 지금 심사를 맡을 사람이 부족한 이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

## 회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네 가지

- 데스크 리젝션의 본격 시행:** 본심사에 부적합한 논문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 심사 부적합(Desk Rejection)으로 처리합니다. 필수 서류나 양식이 미비한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려합니다. 반려 시점이 논문 마감일을 지나면 차기 호로 이월합니다.
- AI 기준 명문화:** AI는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. 연구에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. 심사위원은 논문을 AI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.
- 2인 익명 심사와 정성 평가:** 두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, 극단적 평가가 나오면 담당 편집위원이 최종 판정합니다.

## 회원 여러분께

회원 여러분,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정동훈입니다.

이번 규정 개정을 안내드리기 전에, 학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## 학보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

**첫째, AI로 인해 급증하는 투고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**

생성형 AI가 보급된 뒤 투고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문제는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있습니다. 연구 문제가 분명하지 않거나, 확인되지 않는 인용이 들어 있거나, 일반론만 나열한 원고가 늘었습니다. 이런 원고를 모두 본심사에 보내면 얼마 안 되는 심사위원의 시간이 소진되고, 성실하게 쓴 논문의 심사는 그만큼 늦어집니다.

**둘째, 학보를 함께 만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**

투고 급증으로 인해 부편집위원장 후보 다섯 분께 연락드렸습니다. 다섯 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. 심사위원 요청도 마찬가지여서, 많은 분께 부탁드렸지만 상당수가 거절하셨습니다. 열 번째 후보에게 요청에서 심사위원 숫자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. 그런데 거절하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지금도 학보에 논문을 투고하고 계십니다.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, 회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.

동료 심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심사하기 때문에 내 논문도 심사받을 수 있는 상호 의무의 제도입니다. 투고라는 혜택은 누리면서 심사와 편집이라는 책임은 지지 않는 연구 환경이 굳어진다면, 학보를 지탱하는 것은 소수 위원의 희생뿐입니다. 그런 구조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.

## 그래서 세운 세 가지 원칙

- 1. 대외 학술 지침의 엄격한 준수:**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,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, 국제출판윤리위원회(COPE) 가이드라인의 요구를 규정 문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.
- 2. 국제 표준의 학술지 운영 프로세스 확립:** 데스크 리렉션, 2인 익명 심사, AI 정책, 저작권 동의 등 국제 주요 학술지에서 표준이 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.
- 3.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:** 점수표에 기대는 기계적 판정에서 벗어나,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이 전문가로서 책임 있게 판단하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.

## 주요 개정 내용

---

### 1. 데스크 리렉션의 본격 시행, 그리고 반려 강화

- 모든 투고 논문은 본심사에 앞서 소관 분야 부편집위원장이 **학보 주제와의 부합성과 학술적 완성도**를 사전 검토합니다. 부적합하면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**본심사에 회부하지 않습니다**.
- 데스크 리렉션 사유는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각각 의견서로 기록합니다.
- **필수 서류와 양식을 갖추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합니다.** 반드시 규정과 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 주십시오.
- 반려 시점이 논문 마감일을 지나면 차기 호로 이월됩니다.

## 2. 생성형 AI: 역할별 기준

| 역할    |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저자    | AI는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. 연구 설계, 데이터 분석, 초안 작성에 AI를 썼다면 도구명, 목적, 방식을 <b>방법론 절이나 AI 선언부에 밝혀야 합니다</b> . 단순한 문법 교정, 문체 개선, 번역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. 미공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AI 산출물의 오류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<b>최종 책임은 저자에게</b> 있습니다. |
| 심사위원  | 심사 대상 논문을 AI 도구에 <b>입력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</b> . 본인이 쓴 심사평을 윤문할 때만 예외이며, 이때도 논문 내용은 넣으면 안 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편집위원회 | AI를 악용해 데이터를 위조·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철회하고,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. 2인 익명 심사와 담당 편집위원의 정성 평가

- 본심사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2인이 맡고, 저자와 심사위원이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**익명 심사 (double-blind)**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두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되, 극단적 평가의 경우 부편집위원장(혹은 편집위원)이 정성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정합니다.
-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합니다.

##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

이번 개정의 목표는 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**좋은 논문이 제대로, 제때 심사받는 학보**를 만드는 것입니다. 그러려면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.

**학보에 투고하신다면, 학보의 심사 요청에도 응해 주십시오.** 그것이 학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
규정 전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정동훈 드림